

사 고

‘자비연꽃 달기’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본사와 조계종은 5월 20일까지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은 불교계 최초의 재난구호 및 국민 소외계층을 위해 설립되는 ‘자비나눔 기금’ 모연 사업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웃을 위해 연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비연꽃 달기’ 동참 안내

- 불자 개인은 성심성의껏 기금을 내주시고, 자비연꽃배지 24K(금도금)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 사찰 및 단체는 자비연꽃을 개당 1,000원에 보급합니다.
- 모인 ‘자비나눔 기금’은 재난구호 지원 및 활동, 소년 소녀 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 자비연꽃 배포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내 ‘자비나눔 기금 운영위원회’  
전화 02-2011-1820 / ARS 060-700-0482

조계종 총무원 ·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 성공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122,000원

총누적금액 40,357,09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범위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 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달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시시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부처님 모시듯 이웃 치료할게요”

인터뷰 광주 문빈정사에 무료구강진료소 연 임수령 원장



임수령 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부처님 이름으로 펴겨되어 어제가 무겁지만 누구에게나 부처님 모시듯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5월 1일 광주 문빈정사 일주 문열에 세존구강 무료진료소를 개설한 임수령이 행복환 치료 원장. 임 원장은 “먼저 노숙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과 치료를 하겠다”고 말했다.

10년전 문빈정사 유머가서회 창립과 함께 초대회장을 역임한 임 원장은 “문빈정사 유머가서회는 회원들 가운데 치료의사가 많아 오래 전부터 무료구강진료소 건립을 발



임수령 원장(사진 오른쪽)이 문빈정사 주지 석장 스님(사진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해 스님들에게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원했다”며 “주지 석장 스님이 사찰 공간을 제공해 이밖에 뜻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치과 치료기기 일체를 보시한 임 원장은 “무료진료소 소식을 들은 광주 용봉로타리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경비일부를 지원하기로 해 더욱 힘이 난다”며 “부처님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존구강 진료소는 매주 수, 금요일 오전 10-오후 2시 유머회 회원들로 구성된 치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로 구강 검진은 물론 보철 등 치료까지 펼쳐진다.

한편 광주 문빈정사 유머가서회(회장 박정현)는 이날 개원식에 앞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수계식을 병행했다.

광주=이준엽 기자

생명나눔본부 봉은사서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5월 7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장기기증 및 후원 캠페인을 벌였다. 봉은사 신도들에게 홍보물 600부를 배포, 불자들의 생명나눔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한 것이다.

또한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자비연꽃 배지’ 110개를 판매했다. 수익금 11만원은 유전성구상절역구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5월의 환우 송인한군(2)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달마도 무료로 보내드려요”



도를 무상보시한다.

7년 전부터 달마도를 그려온 법공 스님은 그동안 불사에 사용하도록 각 사찰에 작품을 보시해왔다. 스님은 사찰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연락만 하면 우편으로 보내준다.

법공 스님은 “워낙 한적한 토굴에서 살다보니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는 현대불교신문이 유일한 벗”이라며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현대불교 독자들에게 달마도를 선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05) 883-7257 김원우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성심회

“어르신, 발바닥 시원하시죠”

“여기 무릎까지 주물러드리면 관절에 좋대요. 시원하시죠, 어르신?”

5월 4일 서울 영등포노인복지관(관장 서병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단 성심회 허문순 팀장(57)이 김복희(가명·75) 어르신의 발과 다리를 안마하면서 다정스레 말을 건넨다.

김복희 어르신은 이미 시원한 기분에 눈을 감은 지 오래다. 그러면서 “집에서 속상했던 게 다 풀리네, 그러”라는 말로 마사지를 받는 흐뭇한 기분을 표현한다.

매일 첫째, 셋째 주 수요일 두 차례 영등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안마하는 성심회는 화곡동 성심사주지 명우 도반으로 만나 복지에 입문한 7명의 보살들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그저 ‘배워놓으면 건강에 좋겠지’라며 막연한 마음으로 시작한 성심회 보살들, 이왕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쁨이 커질 것이라는 믿음에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의 노인복지관에

서 발마사지를 한지가 이제 3년이 넘었다. 성심회는 작년 11월부터 활동영역을 넓혀 영등포노인복지관에서도 봉사를 하게 됐다. 그렇게 원력을 세운 덕분인지 성심회 보살들에게 발마사지를 받는 어르신들의 발은 젊은 사람 발 못지않게 건강함을 자랑한다. 정성스러운 마사지 이후 어르신들이 두 손을 모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넬 때는 봉사의 피로가 말끔하게 씻겨나간다.

“사람들이 ‘왜 하필 발이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발이 더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 인식이 그렇지. 내 손이 닿아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면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요.”

노홍우(57)·성인순(55) 보살이 이야기하는 봉사의 즐거움은 다른 이들의 시선에 야망과 얽고 자신이 뜻한 곳에서,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김강진 기자



“꼭꼭 누르고 문질러야 건강해져요” 성심회 보살들은 매일 첫째 셋째 수요일마다 손끝에 정성을 가득 담아 어르신들의 발을 마사지한다. 사진은 5월 4일 봉사모습.

■ 휠체어나 지팡이 보내주세요

2000년 10월 설립된 영등포노인복지관은 지역 노인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휠체어나 지팡이 등의 보조장구가 많이 필요하

지만 이러한 기구가 고가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 늘 한정적이다. 성심회 보살들은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다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나눔의 정을 호소했다. (02)2068-5326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 인터넷 홈페이지 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부처님 오신 날 특별행사★**

**봉 신력사 + 부석사 + 청량사**

**삼사찰 순례여행**

**신력사**  
여주읍에서 동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남한강 상류봉미산 기슭에 있는 오래된 전통 사찰로서 신라시대엔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절은 강가쪽 앞면 위에 벽돌로 쌓은 마중전탑이 있어서, 고려 때부터 벽돌이라고도 불렀다.

**부석사**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동·외연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대사가 몽골군에 유학하고 있을 때 당 고종의 신라침략 소식을 듣고 이를 왕에게 알리고, 그가 덕을 얻어 교학을 폐기 위해 귀국하여 이 절을 창건, 우리나라 화엄사상의 발원지가 되었다.

**청량사**  
신라 문무왕 3년(66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절로, 법당은 지방유명문화재 47호인 청량사(유리보전)이 보존되어 있다. 이 청량사는 동주지리역상, 길지 중의 길지로 꼽히는데, 육룡(대간룡우리)이 연꽃잎처럼(정량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정량사는 연꽃의 수줄자리이다.

■ 날짜 : 2005년 5월 14일 ~ 5월 30일까지 [매주 월, 수, 금, 토, 일 출발]  
■ 코스 : 서울-여주신력사-영주부석사-동화청량사-서울  
■ 회비 : 37,000원 [왕복교통비, 조식, 중식, 석식, 입장료, 통사로 일체포함]  
※ 석가탄신일은 가는 봉암사로...

■ 출발시간  
07:00 영등포 경방빌 백화점 앞  
07:30 서울역 9번출구 대우빌딩 앞  
08:00 잠실역 3번출구 니구리상 앞

www.dongbaektour.co.kr  
인터넷주소창에 “동백여행사” 라고 치세요.  
친목단체환영 / 주야 휴일 접수함  
Dong Baek  
동백관광여행사  
예약문의 : (02)2233-3500  
계좌번호 : 농협 046-02-119148 [동백여행사]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1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둔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인 것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5일 - 8월 4일 (31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기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국-알리-도마-다홍리탄-마자르-예청-호탄-민풍-체르첸-차르크리크-루오지양-하루고-둔황
- 안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수미산 여행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